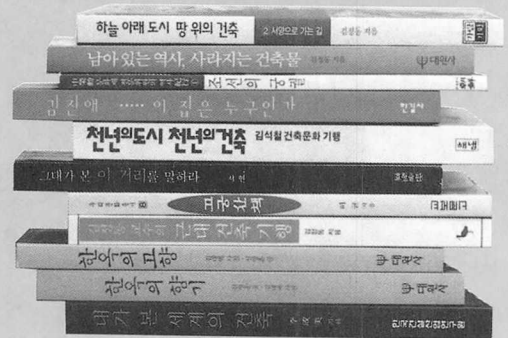


인문학적 교양으로 무장한 '이상'의 후예들

에세이식으로 쓴 건축관련서 많이 나와...
기행문 빌려 건축에 얽힌 역사와 문화 설명



기행 에세이는 일반인이 건축물을 좀더 친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매개체다. 최근에는 건축사가, 미술가, 사진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독특한 시선과 개성으로 건축물을 읽어낸 건축기행 에세이들을 출간했다. 이 책들은 건축물에서 아름다움과 살아있는 역사, 선조들의 문화를 읽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복합문화물'로서 건축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점가에는 건축기행 에세이가 많이 나왔다. 근래 나온 기행 에세이들의 특징은 지은이의 전공분야가 다양하다는 점. 건축사가뿐 아니라, 미술가, 사진가 등이 필자군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과 그 향기

기행 에세이들은 지은이의 시선과 개성에 따라 각기 다르게 건축물의 아름다움과 역사, 그리고 문화를 읽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 나라 건축물을 다룬 에세이로는 우선 한

옥의 아름다움을 다룬 책이 눈에 띈다. 《한옥의 향기》와 《한옥의 고향》(이상 대원사)은 한옥문화원 신영훈 원장과 사진작가 김대벽씨가 호흡을 맞춘 한옥 3부작 가운데 일부다. 《한옥의 고향》은 한옥의 건축적 조형보다 한옥의 정서와 풍물, 한옥을 감싸고 있는 풍경 등에 초점을 맞춘 에세이집이다. 지은이는 마을 입구부터 시작해 한옥의 솟을대문, 담장, 굴뚝, 안마당, 공간 등을 구석구석 찬찬히 돌아보며 한옥의 아름다움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다. 《한옥의 향기》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종가와 명가를 둘러보고 쓴 기행문이다. 전주 최씨 해평파 종택을 비롯한 30여 가옥을 순례하며, 집안내력과 집의 개성적

인 구조와 꾸밈새 등을 생동감있게 되살렸다.

전통건축의 미적 극치는 역시 궁궐에서 발현된다. 《조선의 궁궐—신영훈의 역사기행 1》(조선일보사)은 신영훈 원장이 창덕궁 등 5대 고궁을 돌아보며, 전통건축의 미적 기원과 일반인이 잘 모르는 역사 상식을 소개했다. 서울시대 4대 고궁을 답사한 《고궁산책》(허균, 교보문고)은 궁궐의 돌다리·지붕·계단·연못 등 크고 작은 장식물에 깃든 독특한 상징성에 초점을 맞췄다. 예컨대 광화문 앞 해치상을 비롯한 궁궐의 모든 돌조각상들은 궁궐을 이상적인 세계로 유지하려 했던 선인들의 길상벽사의 염원이 이뤄낸 상징물임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밝히는 식이다. 지

전문성과 대중성을 아우르는 건축전문 웹진

웹진 아크포럼 대표 김진애씨

1997년 4월 창간된 '아크포럼'은 (주)서울포럼에서 운영해온 웹진이다.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아크포럼은,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97년 6월 디지털 《조선일보》가 선정한 '베스트 웹진 7', 월간 《건축인 POAR》에서 선정한 '98건축드림팀'으로 뽑히기도 했다. 아크포럼 김진애 대표(47·사진)를 만나 웹진의 편집원칙과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창간정신과 운영상의 특징을 말해달라.

"아크포럼은 건축과 대중문화의 결합을 지향한다. 대중에게 건축의 실재를 알리고 건축예술을 향유케 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건축문화를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

반 포털사이트의 기능을 갖췄다. 강의록, 설계스튜디오 회의, 세미나 등 건축 현장에서 오간 실무기록들도 자료화해 제공한다. 또 네티즌들이 직접 참여하는 메뉴가 많다. '토크쇼'는 매달 한번 건축계 인사를 '게스트'로 모시고 희망하는 네티즌이면 누구나 질문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다."

— 네티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회원들의 비율을 볼 때 아직 건축·조명·조경·토목 등 건축전공자와 인접학문 분야의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회원으로 등록된 일반인들의 비율도 5%에 이른다. 앞으로 건축과 영화, 문학 속의 건축 등 인접 장르와의 다양한 접점점을 찾아내 네티즌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또 건축문화의 지평도 넓혀나갈 생각이다."

— 웹진을 운영하며 느끼는 보람은 어떤 것인가?

"현재 '아크포럼'의 10여개 게시판은 매우 활성화돼 있다. 네티즌들끼리 스터디 그룹을 결성해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열기도 한다. 웹상의 의견합치가 건축 현장에서 실천되는 것을 보면 가슴이 뿌듯하다. 또 우리 웹진의 많은 메뉴 가운데 상당 부분은 네티즌들이 제공한 아이디어다." — 강성민 기자



은이는 궁궐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배우는 장소'임을 강조한다.

건축을 통해 읽는 역사와 사회

《그대가 본 이 거리를 말하라—서현의 우리 도시기행》(효형출판)은 신예건축가 서현씨가 현대 도시의 거리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서울의 종로·세종로, 부산의 광복동, 광주의 금남로 등 도시의 거리 20여곳을 기행하고 쓴 이 책은 도시문명 비평집에 가깝다. 지은이는 도시의 구성 요소인 길거리와 그 주변 건축물들을 분석, 외세에 일그러지거나 개발에 뒤떨리거나 혹은 거대자본에 의해 왜곡된 우리 도시의 일그러진 초상을 고발한다.

건축사학자 김정동 교수는 《김정동 교수의 근대건축기행》(푸른역사)에서 건축물에 자취를 남긴 우리의 근·현대사를 복원해낸다. 지은이는 명동성당·화신백화점·성공회 서울대성당 등 1876년부터 1950년대에 지어진 근대건축물을 살펴 보면서, 각 건축물에 숨은 역사적 진실과 건축사적 의미를 설명한다. 또한 지은이는 이 책에서 근현대사의 산 증거인 화신백화점·손탁호텔 등을 마구 헐어버리는 세대를 고발했다.

《하늘 아래 도시 땅 위의 건축(전2권)》(가람기획)은 김교수의 시선이 세계로 확대된 경우다. 베이징·히로시마·홍콩·뉴욕·파리·로마·아테네 등 세계적인 도시의 건축물을 에피소드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책의 특징은 다양한 역사 현장을 우리 근현대사와 연관시켜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 예컨대 <태국의 수도 방콕>편에서 일제시대 한국인 건축가 김충국이 참여했던 방콕 일본문화회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식이다.

유럽의 건축물들은 기행 에세이의 단골 메뉴다. 그 유구한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건축 양식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본 세계의 건축》(이성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동양미술을 전공한 지은이가 세계각지의 건축물들을 돌아보고 쓴 기행문. 타지 마할, 성 소피아 성당 등 유명한 건축물을 비롯해 중국의 망사원, 에모리대학의 마이클 칼로스 미술관 등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건축물도 소개했다. 한 건축물이 만들어진 시대의 역사적·문화적 배경과 망명했을 당시 그 지역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주장이 뚜렷하고 독창적인 책을 내고 싶다”

건축전문출판사 '발언'을 찾아서

'발언'은 건축 전문 출판사다. 편집장을 포함해 모두 네명의 식구가 10여평의 아담한 공간에 등지를 틀었다. 하지만 《한국목조건축의 기법》《건축미학산책》《조선건축사》 등 입때껏 펴낸 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들이 '보통'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발언의 대표작은 《우리 건축을 찾아서》. 우리 건축의 과거와 현재

를 두루 통찰하고 있는 이 책은 발언 식구들이 쓴 뜬금없고 낯선 이 책은 발언 식구들이 쓴 뜬금없고 낯선 이 책은 발언 식구들이 쓴 뜬금없고 낯선

“여러 전문가들에게 책을 써달라고 부탁했지만 모두 거절하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마음 먹었죠. 편집부 세명이 꼬박 1년 동안 밤낮 없이 작업했습니다. 자료란 자료는 다 끌어모았죠.”

이 책을 만들 때 주위에서 많은 비웃음을 들었다. 하지만 막상 책이 나오자 상당히 좋은 평을 받았다는 게 김편집장의 말이다.

발언의 역사는 93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출판사를 만든 사람이자 편집장이기도 한 김선문씨는 당시 한 설계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었다. 하지만 건설계의 부조리한 관행과 관련 공무원들의 비리에 환멸을 느낀 김편집장은 설계사무소를 그만두고 건축관련 서적을 펴내는 한 출판사에 입사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1년을 못 버티고 뛰쳐나왔다. 그리고 발언을 설립했다.

“유통구조가 너무 엉망이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또 당시의 건축 관련 서



적은 사진을 적당히 곁들여 펴낸 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건축에 관한 진지한 내용을 담은 책들은 드물었습니다.”

발언이 제일 처음 펴낸 책은 《조선건축사》다. 1994년의 일인데, 북한책이었기 때문에 김편집장은 남대문 경찰서의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사무실이 수색당할 뻔도 했다. 97년에 《민족미술》을

펴내고도 서대문 경찰서에 호출당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경험'이 있어 오히려 여유 있었다고 김편집장은 말한다.

이후 발언은 건축 철학과 건축 역사를 다룬 책을 꾸준히 펴내며 본궤도에 진입했다. 남들에게는 '악재'였을 IMF가 발언에게는 오히려 힘이 됐다. 건설경기가 위축되면서 건축에 대한 진지한 성찰적 분위기가 일었고, 이와 함께 발언에서 펴낸 건축 전문 서적의 매출이 늘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발언은 그 어느 출판사보다도 좋은 책을 내고 있다고 자부한다. 지금까지 발언이 주로 펴낸 책은 건축 이론과 역사에 관한 다소 전문적인 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일반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책도 출간하고 있다. 이는 건축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예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잘 팔릴 것 같다고 미루잡이로 책을 펴내지는 않는다. 발언은 나름대로 뚜렷한 편집원칙을 세우고 있다. “내용이 황당하더라도, 주장이 뚜렷하고 독창적이면 된다”가 그것이다. — 최갑수 기자

《세계문화기행 유럽편(전2권)》(임정의, 코리언북스)은 건축물만 전문적으로 찍는 사진작가의 기행문이다. 프랑스의 베르사이유 궁전,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이슬람의 도가피 궁전 등 유럽 각국의 도시와 건축물 등을 생생한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건축사에 대한 작가의 독특한 안목을 바탕으로 유럽문화의 진수를 전달해준다.

《김석철의 세계건축기행》(창작과비평사)은 건축가 김석철씨가 20여년 동안 세계 각국의 도시와 건축물들을 둘러보고 쓴 글이다. <죽음의 공간> <신들의 공간> <삶의 공간> <인간의 공간>

등의 주제로 나눠, 고대 로마인들이 건설한 지하 무덤도시 카타콤베, 이슬람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타지마할, 고대 그리스 신도시의 발상지 메가리데, 중국의 자금성 등에 깃든 인류의 역사와 문명을 성찰했다. — 김정은 기자